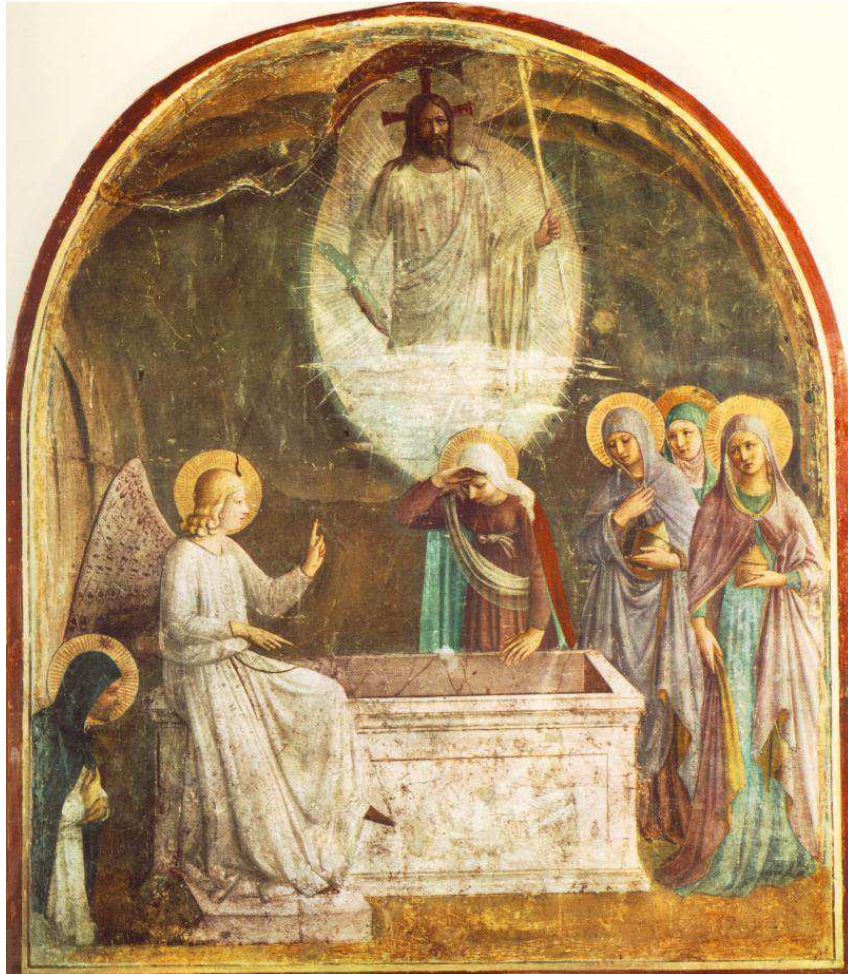


2014 4.20 예수 부활 대축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34 ~ 37 ~ 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제 2 독서 : 콜로새서 3,1-4 <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복 음 : 요 한 20,1-9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한국의 세월호 침몰로 인하여 아직도 244 명이라는 어린 학생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한국에서 일어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읽다보면 생명의 목소리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절차만을 따져대고 어떤 정치인은 유족들이

슬퍼하는 현장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또 어떤 누구들은 유족을 가장하여 밥차려 먹고, 술차려 먹고 한다는 기사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합니다. 한편 단원고 대표선수들은 이번에 탁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할 그들이 코치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은 기쁨보다도 슬픔으로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쁜 와중에 슬픔!** 제가 말씀드린 **알렐루야 노래에 슬픈 멜로디가 들려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기쁘지만, 그 안에는 죄없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전례음악을 들어보면 그 멜로디 마다 마다 전례가 내포하고 있는 심오한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례예절의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도 그냥 원초적인 인간적인 것이지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먹고 살면 되지! 하는 식의 전례음악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습관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세시대의 전례음악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불러드렸던 알렐루야! (성가 139 장) 멜로디가 바로 중세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멜로디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이 한 멜로디에 다 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고통과 그분의 죽음을 느끼면서 이 부활절을 기쁘게 맞고 있는가?** 제가 어제 부활성야미사 강론에서 성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시다. 어제 축성한 이 성수가 바로 한국식으로 이야기 하면 원조성수입니다. 구 신앙인들은 부활성야에 병을 가져와서 성수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 모셔두었다가 누가 마귀가 들렸거나 하면 예수호칭기도를 하면서 이 성수를 뿌립니다. 그러면 진짜,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는 성당이 반밖에 차지를 않았습시다. 또 성당이 반밖에 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부족입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믿는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당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파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부족한 것이지요. 최근에 나사에서 케플러 186F 라는 행성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와 너무 똑같이 닮아서 만약 인간이 그 행성에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행성은 지구로부터 500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500 광년이라는 거리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거의 영원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가 1 초에 지구를 7 바퀴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500 년을 가야하는 거리라면 과연 우리가 그 거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발표하면 그 존재를 의심없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안합니다. 빛의 그 빠른 속도로 500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과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 할 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수공을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서의 이야기는 글썄요! 합니다. 2000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 년전의 이야기 임에도, 500 광년에 비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역사적 사건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믿었다면, 믿고 있다면! 이 사순과 성주간에 성당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내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요만큼의 신앙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문화안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정신은, 진짜 500 광년이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도 발견을 하였는데 그것은 태양의 2 백배이고, 그 밝기는 태양의 1 만 5 천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6 천 5 백 광년 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발견되고 있는 또 다른 행성들도 많습니다.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지닌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였듯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다 알수는 없습니다. 알고자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산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쁜 날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과연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했는가를 계속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가지라도 부활하였다고 느끼신다면 오늘의 이 부활은 너무도 즐겁고 기쁜 날이 될것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스트레스와 짜증과 불안과 고통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탓이나? 하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회의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 탓으로 돌릴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내 고통이 남에게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탓이다!** 를 되풀이 해 가면서 내가 그것을 풀수 있는 권한을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을 내가 갖는다면 바로 고통중에 평화가, 어려움중에서도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 ~ 37 ~-43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37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39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40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41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42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43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 코린 5,6 ~-8>

형제 여러분, 1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2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